



## 8대 산업 공급망 프로젝트 자립화, 다변화 속도

- 요소 공급망 얼라이언스 발족, 생산시설 및 수급관리계획 마련 검토
- 제4차 수출·현안 전략회의를 겸한 ‘8대 공급망 프로젝트’ 이행회의 개최

정부가 요소 수급 안정화를 위해 국내 요소 생산시설 구축 검토, 연간 요소 수급관리계획 수립 등 근본적인 대책을 민관 합동으로 마련한다. 또한, 반도체 공정용 희귀가스인 네온은 ‘28년 완전 자립화를 목표로 재활용 기술개발 및 생산시설 확충을 적극 지원하는 등 공급망 자립화 및 다변화에 속도를 낸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이하 산업부)는 3.25.(월) 안덕근 장관 주재로 ‘8대 산업 공급망 선도 프로젝트’ 이행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이 밝혔다. 이번 회의에는 기획재정부, 외교부, 조달청 등 관계부처, 롯데정밀화학(요소), 티이엠씨(반도체 희귀가스) 등 8대 프로젝트 추진기업, 한국수출입은행, KOTRA, 광해광업공단 등 유관 지원기관이 모두 참석하였다.

8대 산업 공급망 선도 프로젝트는 산업부가 지난 해 12월 발표한 ‘산업 공급망 3050전략’에서 선정한 185개 소부장 공급망안정품목 중 국민 생활 및 첨단산업에 필수적이나 공급망 불확실성이 커 조기 공급망 안정화를 도모하기로 한 품목으로 요소, 흑연, 반도체 희귀가스, 회토 영구자석 등이다.

산업부는 이들 프로젝트의 공급망 안정화를 관계부처·기관 등과 협업하여 적극 검토/추진하기로 하였다. 먼저, 기술개발, 생산투자, 대체처, 비축 등 공급망 종합 지원사업 메뉴판을 마련하고 맞춤형으로 패키지 지원한다. 국내 생산시설 확충을 위한 재정·금융·세제 등 추가 지원방안도 검토한다. 또한, 수급 위험이 큰 품목은 연간 수급관리계획을 수립해 공공비축 확대, 민간 재고 확보 등을 선제적으로 추진하다. 아울러, 프로젝트별로 업계-지원기관 등으로 민관 합동 공급망 얼라이언스를 구성해 공급망 안정화 과제 및 애로를 상시 발굴하고, 금융, 무역, R&D, 핵심광물 등 관계기관으로 공급망 지원기관 협의체를 운영해 이를 신속히 해결해 나간다.

특히, 요소는 오늘 발족한 ‘요소 공급망 얼라이언스’ 등을 통해 근본적 수급 안정화 방안을 추진한다. 먼저, 얼라이언스는 국내 생산시설 구축방안이나 연간 수급관리 계획 수립 등을 포함한 수급 안정화 방안을 제시하고, 정부는

얼라이언스에서 제시한 방안을 검토하여 올해 6월말 시행되는 공급망 기본법에 따라 수립될 공급망 안정화 기본계획에 반영하는 것을 협의·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산업부는 얼라이언스 논의 결과를 토대로 요소 수급 불안이 반복되는 추·동절기(9월~차년도 2월)에 대비해 연간 요소수급관리계획도 선제적으로 수립해 수급을 관리해 나갈 예정이다.

안덕근 장관은 “장관부터 프로젝트 매니저로서 8대 프로젝트의 공급망 안정화를 신속하고 강력히 추진하겠다”고 강조하면서 “공급망은 경제의 중추 신경으로 공급망 기본법, 소부장 특별법, 자원안보특별법 등 공급망 3법이 완비됨에 따라 관계부처가 긴밀히 협력해 프로젝트별 자립화, 다변화, 자원 확보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담당 부서 <총괄>	산업공급망정책관 산업공급망정책과	책임자	과 장	김종주 (044-203-4910)
		담당자	서기관	김창완 (044-203-4911)
		담당자	사무관	박현태 (044-203-4916)
	산업공급망정책관 소재 부품 장비개발과	책임자	과 장	김영윤 (044-203-4920)
		담당자	사무관	김현섭 (044-203-4921)



더 아픈 환자에게 양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가벼운 증상은 동네 병·의원으로**



## 1. 추진 배경

산업부는 지난해 12월 “산업 공급망 3050 전략”을 발표했다. 185개 소재·부품·장비(소부장) 공급망안정품목을 선정하고 이들 품목의 특정국의존도를 2030년까지 50% 이하로 낮추기 위한 전략이다. 특히, 요소, 흑연, 반도체 희귀가스, 무수불산, 희토 영구자석 등 국민 생활 및 첨단산업에 필수적이나 공급망 불확실성이 커 조기 공급망 안정화가 필요한 품목을 “8대 산업 공급망 선도 프로젝트”로 선정하였다.

3.25.(월) 안덕근 산업부 장관 주재로 개최된 「8대 산업 공급망 선도 프로젝트」 이행회의는 8대 프로젝트의 공급망을 점검하고 민관이 협력하여 공급망 안정화를 위해 필요한 과제를 신속히 추진하기 위해 개최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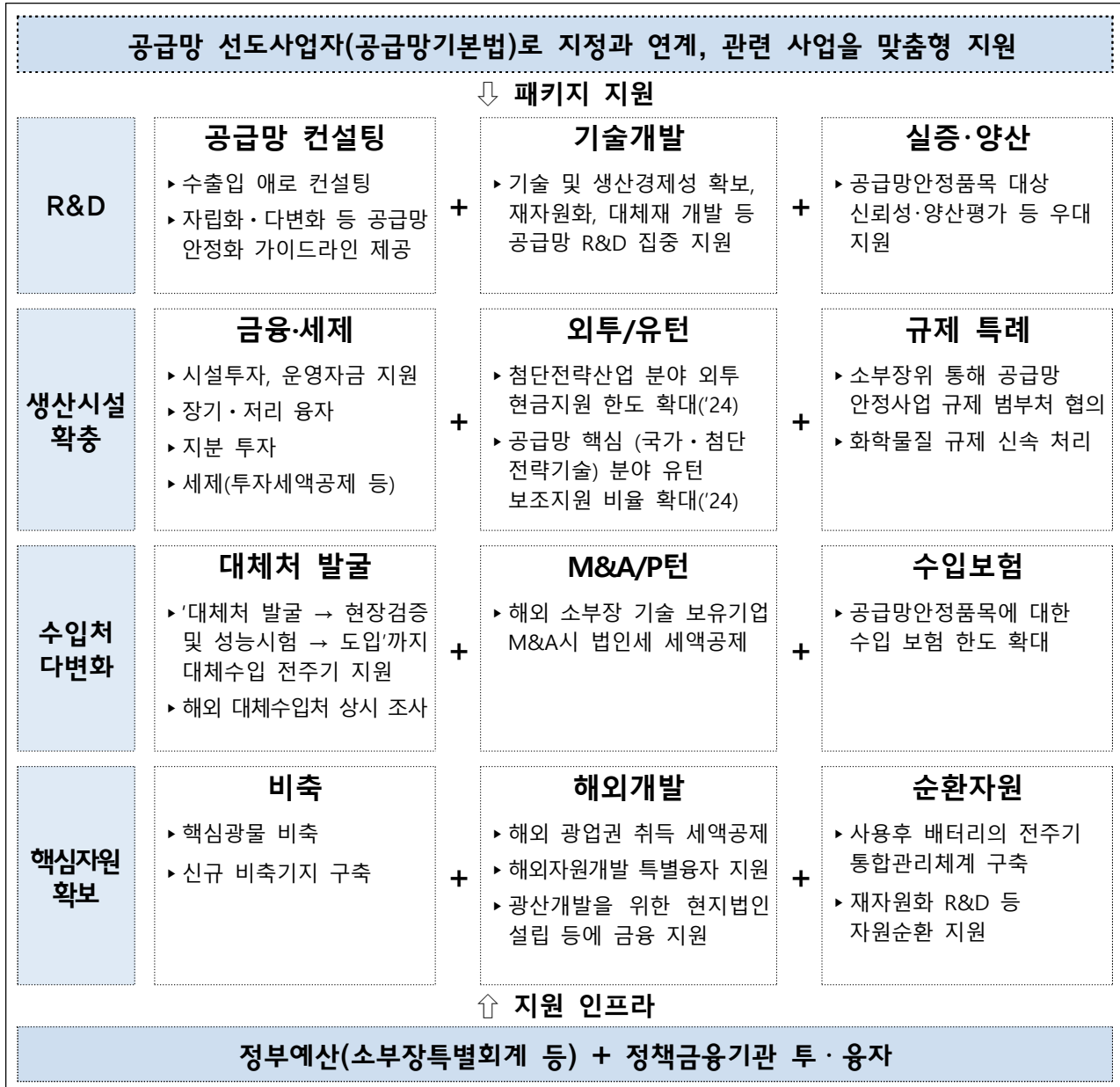
안 장관은 “장관부터 프로젝트 매니저로서 8대 프로젝트의 공급망 안정화를 신속하고 강력히 추진하겠다”고 강조하며, “공급망은 경제의 중추신경으로 공급망 기본법, 소부장 특별법, 자원안보특별법 등 공급망 3법이 완비됨에 따라, 관계부처가 긴밀히 협력해 프로젝트별 자립화, 다변화, 자원 확보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 2. '8대 산업 공급망 선도 프로젝트' 지원방안

### ① 공급망 안정화 종합 지원사업 메뉴판 마련 및 패키지 지원

먼저, 기술개발, 생산투자, 대체처, 비축 등에 이르기까지 공급망 안정화 종합 지원사업을 메뉴판으로 마련하고, 프로젝트 추진기업을 향후 공급망 기본법 시행시 공급망 안정화 선도사업자 지정 등과 연계하여 관련 사업을 패키지로 제공한다. 예컨대, 희토 영구자석의 경우, 폐자석 재활용 희토 영구자석 제조기술 개발을 지원하고, 기술개발이 완료되는 즉시 생산공정 투입이 신속히 가능하도록 양산테스트 등 실증을 병행 지원한다. 또한, 생산시설 신·증설시 투자 자금 및 시설 금융 등을 지원한다. 공급망 기본법 시행시 한국수출입은행에 신설 예정인 공급망안정화기금을 통한 지원방안도 관계부처와 협의/검토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희토류 등 원자재 도입시 수입보험을 지원하고 추가 대체처도 대체처 발굴부터 성능 시험, 도입에 이르는 전과정을 지원하게 된다. 아울러, 정부는 기업의 생산계획 등을 고려해 희토류 공공 비축분을 확대한다.

**< 공급망 안정화 종합 패키지 지원 방안 >**



특히, 반복적 수급 불안 품목, 수입처 대체가 어려운 품목 등 핵심 전략 품목에 대한 국내 생산 지원방안도 검토해 나가기로 하였다. 일본의 경우 '20년부터 국내 투자 촉진기금을 통해 중요 품목의 국내 생산 신·증설 자금을 최대 100억엔을 한도('22년 기준)로 보조하고 있다.

산업부는 관계기관으로 워킹그룹을 구성하여 일본 등 주요국 사례를 검토하고 재정, 금융, 세제 등 추가 지원방안을 마련해 올해 6월말 공급망 기본법 시행에 따라 수립될 범부처 공급망 안정화 기본계획에 반영토록 기재부 등과 협의·추진할 계획이다.

## ② 핵심품목 수급 관리

주요국의 수출통제 품목, 시장 변동성이 큰 품목으로 단기 수급 안정화가 필요한 품목에 대해서는 글로벌 수급 동향 분석, 국내 수요 및 재고 등을 토대로 연간 수급관리계획을 수립해 선제적으로 관리한다. 수급관리계획에 따라 공공비축 물량을 확대하고, 민간의 선재고 확보를 지원한다. 또한, 민관 공동 구매 등 조달방식을 다양화하고 위기시를 대비해 IPEF 공급망 협정 등을 활용한 국제 공조도 추진한다.

아울러, KOTRA에 공급망안정품목 대체처 발굴 헬프데스크를 신규로 설치해 주요 품목별 대체국 및 대체기업 리스트를 사전에 확보하고 수요기업의 대체처 발굴을 상시 지원할 계획이다.

## ③ 공급망 얼라이언스 및 공급망 상시 지원체계 구축

프로젝트별로 수요-공급기업, 지원기관 등으로 민·관 합동 공급망 얼라이언스를 발족해 공급망 안정화 과제 및 애로를 상시 발굴하고, 정부는 발굴된 사항에 대해 제도화, 정책화, 사업화를 추진한다. 이번 프로젝트 이행회의에서는 롯데정밀화학, 금성이엔씨 등 요소수 생산기업, 향후 공급망 안정화 기금 운용기관인 한국수출입은행, 요소 용역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 소부장 공급망센터인 KOTRA 등으로 “요소 공급망 얼라이언스”가 출범하였으며, 산업부는 프로젝트별 얼라이언스를 순차적으로 발족할 예정이다.

또한, 공급망 신속 대응체계와 함께 공급망 상시 지원체계를 가동한다. 지난 2월 산업부는 185개 공급망안정품목별 전담관 지정, 인공지능, 빅데이터 기반 조기경보시스템 고도화, 업계와 산업 공급망 협의회 정례 운영 등 공급망 신속대응체계를 가동하고 있으며, 4월 중 금융, R&D, 무역, 자원(핵심광물) 등 유관기관으로 공급망 지원기관 협의체를 구성해 공급망 얼라이언스 등에서 발굴된 애로사항을 신속히 해결할 계획이다.

### 3. 프로젝트별 추진현황 및 계획

#### ① 요소

요소 공급망 얼라이언스 등을 통해 요소에 대한 근본적인 수급 안정화 방안을 추진한다. 먼저, 국내 생산의 경제·사회적 비용-효과 분석을 통해 생산시설 구축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생산시 적정 생산규모, 금융구조 설계, 생산시설 구축 일정 등을 포함한 수급 안정화 방안을 제안할 예정이다. 산업부는 얼라이언스(안)을 토대로 국내 요소 생산시설 구축방안을 검토해 기재부 등과 협의하여 범정부 공급망 안정화 기본계획에 반영하는 것을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산업부는 얼라이언스 논의 결과를 토대로 수급 불안이 반복되는 추·동절기(9월-차년도 2월)에 대비해 올해 9월에 연간 요소 수급관리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수급관리계획 수립시 요소 공공 비축, 공공기관 수요처를 활용한 요소수 비축 등의 수급관리방안을 기재부·조달청 등과 협의·검토한다. 아울러, 현재 한시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제3국 수입 요소에 대한 운송비 차액 50% 지원제도의 수급 안정화 효과 등을 분석해 기업의 다변화를 보다 촉진할 수 있는 인센티브를 설계할 계획이다.

#### ② 반도체 희귀가스(네온, 크립톤, 크세논)

네온은 ‘28년 완전 자립화를 목표로 재활용 기술과 생산기술 확충을 지원한다. 네온은 국내 기업이 정부 R&D를 통해 ‘22년 제조기술을 개발하고 현재 국내 수요의 약 30%를 생산하고 있다. 산업부는 ‘26년까지 반도체 공정용 네온 재활용(Recycle) 기술개발을 추가로 지원한다. 또한, 수요기업과의 실증·양산테스트 등을 통해 공정에 사용된 네온 가스를 약 80~90% 포집하고 포집 가스를 정제 후 고순도화하여 생산공정에 다시 투입하는 네온 순환시스템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크립톤, 크세논은 정부 R&D를 통해 ‘23년 제조기술을 개발하여 검증 단계에 있다. 또한, 크립톤, 크세톤 등 반도체 희귀가스 원료(Crude 가스) 추출 설비를 제철소 공기분리장치(ASU, Air Separation Unit)외에도 발전소 ASU 등에도 경제성, 안전성 등을 검토하여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 공기분리장치에서 산/질소 분리 → 극미량 포함된 희귀가스(네온, 크립톤, 크세논)를 추출, 정제해 반도체 공정용 고순도 희귀가스 생산

### ③ 반도체 소재(형석, 무수불산)

불화수소의 원소재인 무수불산은 '22년 멕시코산에 대한 실증을 완료하고 대체 수입('22년 14만불 → '23년 175만불)을 확대하고 있다. 또한 무수불산의 원광인 형석도 3개월분의 공공비축과 함께 '24년에는 할당관세를 신규 적용해 무관세 수입이 가능하다. 이와 함께, 산업부는 무수불산 공급망 얼라이언스를 통해 국내 생산촉진 방안, 수요-공급기업 협력을 위한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 ④ 이차전지 양극재(황산니켈, NCM전구체, 수산화리튬)

황산니켈, 수산화리튬, NCM 전구체 등 이차전지 양극재 핵심소재 국내 생산을 위한 투자 프로젝트가 진행 중에 있다. 정부는 이차전지 공급망 구축 및 생산 투자 지원을 위해 향후 5년간('24~'28) 38조원 이상의 정책금융을 지원할 예정이며, '24년에는 황산니켈 생산 공정기술, 고순도 리튬 화합물 제조기술을 세액공제 대상인 신성장·원천기술에 신규로 포함하였다.

자원 순환 등을 위한 정부 R&D도 지원하고 있다. 올해 고청정 생산기반 니켈 금속 소재화 기술개발('24~'28, 183.6억원)을 신규로 지원하며, 재활용 희소금속 활용 전구체 제조기술('22~'26, 49.4억원), 폐반응용기 업사이클링을 통한 양극재 원료소재 제조기술('23~'27, 65억원)도 개발 중이다. 리튬 비축분도 전년('23년) 5.8일분에서 올해('24년) 30일분으로 확대한다.

특히, 정부는 3.27.(수) 총리 주재로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를 개최하여 포항, 울산, 새만금, 청주 등 이차전지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종합 지원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 ⑤ 이차전지 음극재(인조흑연, 천연흑연)

인조흑연은 국내 기업이 현재 8천톤/연 규모의 생산공장을 가동하고 있으며, '24년 1.8만톤/연, '30년 18만톤/연 이상의 신증설을 추진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 해 11월 비상경제장관회의를 통해 해당 프로젝트의 입지, 용수, 환경 등 애로사항을 점검하고 신속히 해결해 나가기로 한 바 있다. 정부는 해당 프로젝트의 애로 해결을 투자 단계별로 밀착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26년을 목표로 폐흑연자원을 활용한 고순도 인조흑연 제조기술 개발도 지원한다.

천연흑연은 탄자니아(3.5만톤/년), 모잠비크(최대 6만톤/년) 등 수입처 다변화를 추진 중이다. 또한, 최근('24.3월) 우리 외교부 주최로 핵심광물안보파트너십(MSP) 내 흑연 공급망 심층 점검회의를 개최하는 등 주요국과 해외 흑연광물 자원 프로젝트를 발굴하고 연계 투자도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흑연을 대체할 이차전지 음극재 소재를 개발한다. '25년 개발을 목표로 실리콘 음극재 상용화 기술개발('22~'26, 58.1억원)을 진행 중에 있으며 리튬메탈전지 등 차세대 전지개발에도 속도를 낼 예정이다.

## **⑥ 희토 영구자석(희토류 금속, 희토 영구자석)**

정부는 소부장 협력모델 R&D로 희토 영구자석 생산기술 개발을 지원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국내 기업은 지난 해 10월 1천톤/연 규모의 희토 영구자석 생산공장을 대구 전기차 모터 소부장특화단지에 준공하였다.

정부는 국내 생산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 희토류 금속 제조기술 및 폐희토류에서 희토류를 회수하는 기술을 신성장·원천기술에 신규로 추가하였으며, 베트남, 말레이시아 등 자원보유국과 협력을 통해 희토류 조달처 다변화도 적극 지원하고 있다. 또한, 올해 희토 영구자석용 희토류 2종(네오디뮴, 디스프로슘) 비축물량을 1년분 추가 확보('23년 6개월분 → '24년 1년 6개월분)할 예정이다. 아울러, '28년까지 폐자석 재활용 전기차 모터용 희토자석 제조기술 개발과 희토류 사용 저감 및 대체물질 기술개발\*을 지원할 예정이다.

\* 폐자석 재활용 전기차 모터용 희토자석 제조기술 개발 및 실증('24년 착수, 160억원), 중희토류 배제 영구자석 소재 및 산업용 DC서보모터 시스템 개발('24년 착수, 180억원) 등 3개 과제 총 530억원

특히, 4월 중 소부장경쟁력강화위원회를 개최하여 소부장 특화단지 맞춤형 지원방안을 발표하고 대구 전기차 모터 특화단지 지원을 지자체와 함께 신속히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 **⑦&⑧ 마그네슘, 몰리브덴**

마그네슘은 '25년을 목표로 백운석, 해수 등 국내에서 가용한 자원을 활용한 산화 마그네슘 생산기술을 개발 중이며 기술개발과 연계한 pilot 생산라인 구축을 지원할 계획이다.

몰리브덴의 경우 '24년을 목표로 초고순도 몰리브덴 정련 기술 확보 및 실증을 추진 중이며 이와 연계해 추진 중인 몰리브덴 분말 생산설비 신·증설 투자도 적극 지원한다.

또한, 우즈벡과 몰리브덴 상용화 생산 지원 ODA('23~'27, 150억원) 등 핵심 광물 보유국과 공급망 ODA를 통해 다변화도 적극 지원한다. 아울러, 마그네슘('23년 30일분), 몰리브덴('23년 40일분) 비축물량도 '31년까지 100일분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 **4. 향후 계획**

산업부는 반기별로 장관 주재 「8대 산업 공급망 선도 프로젝트」 이행 회의를 개최하여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프로젝트별 추진과제를 밀착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공급망 얼라이언스에서 제시한 애로는 공급망 지원기관 협의체 등을 통해 신속히 해결하고 정책과제는 범부처 공급망 안정화 기본계획 등에 반영하여 제도화할 예정이다.

아울러, 185개 공급망안정품목 중 밸류체인으로 연계된 둘 이상의 품목을 공급망 완결형 소부장 협력모델로 지원하는 등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자립화, 다변화, 자원 확보 등을 적극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 1 [추진기반] 공급망 3법 제도화 및 공급망 신속대응체계 가동

### ① 공급망 기본법, 소부장 특별법, 자원안보법 등 공급망 3법 제·개정

- 공급망기금 조성('24년 5조원) 국가보증채권 동의안 국회 통과('24.2)

\* (사용처) 국내외 생산시설 구축, 대체기술 개발, 수입처 다변화, 핵심자원 확보 등

#### < 공급망 3법 주요 내용 >

구 분	공포일	주요 내용
공급망기본법(기재부)	'23.12	· 공급망안정화위원회, 공급망 기본계획, 공급망 기금 등
소부장특별법(산업부)	'23.6	· 소부장 공급망안정품목, 수입위험 완화, 공급망센터 등
자원안보특별법(산업부)	'24.1	· 핵심광물·에너지 자원 관리, 자원안보위원회, 비축 등

### ② 공급망 교란에 선제 대응하기 위한 공급망 신속 대응체계 가동

\* ①185개 공급망안정품목 전담관 책임 관리 ②인공지능, 빅데이터 기반 조기경보시스템 고도화 ③민관 합동 산업 공급망 협의회(월 2회) ④위기대응 매뉴얼 수립 및 모의훈련

## 2 [자립화] 공급망 R&D 대폭 확대 및 생산 확충 기반 마련

### ① 첨단산업 초격차, 공급망 안정화 등을 위해 소재부품 기술개발에 총 1조 1,410억원 투자(신규과제 4,247억원)

- 특히, 공급망 R&D 대폭 확대('23년 176억(신규 101억) → '24년 739억(신규 586억))

\* 소부장 신뢰성 평가 및 양산테스트 지원사업에 공급망안정품목 가점 신설('24.2)

### ② 신성장·원천기술에 황산니켈 생산 공정기술, 리튬 화합물 제조기술 등 공급망 안정품목 관련 기술 추가('24.2)

### ③ 기업활력법 사업재편 유형에 공급망 안정 분야 신설('24.1)

\* (상법) 간이합병, 소규모 합병시 절차 간소화 (주주총회 의결 → 이사회 승인)  
(공정거래법) 자회사·손자회사 지분규제(상장 30%) 등 유예기간 연장 (최대 5년)

### ④ 공급망 강화·첨단기술 확보를 위한 100대 핵심 외투 유치기업 선정

- 외투 유치를 위한 현금지원 예산도 대폭 확대('23년 500억 → '24년 2,000억)

### ⑤ 유턴 보조금 확대('23년 570억 → '24년 1,000억) 및 법인세 감면기간 연장(7 → 10년)

### 3 **[다변화] 대체처 전주기 지원 및 수입보험 등 인센티브 확대**

#### ① 요소 수입처 다변화를 위한 운송비 차액보조 지원('23.12~'24.4, 22억)

\* 중국 외 일본, 베트남 등 제3국産 요소 도입시 운송비 차액의 50% 지원

#### ② 원자재(공급망안정품목 포함) 수입보험 한도 확대 ('23년 50억 → '24년 100억)

#### ③ 수입 대체처 전주기 지원 확대 ('23년 4.6억 → '24년 7.8억)

\* 대체 수입처 발굴 및 현장 실사 → 샘플 수입 및 성능 검사 → 대체품 도입

### 4 **[자원 확보] 비축 확대 및 자원 확보 기반 조성**

#### ① 핵심광물 등 비축예산 대폭 확대('23년 872억 → '24년 3,031억)

\* (산업부) '23년 372억 → '24년 2,331억 : 리튬(5.8일→30일), 영구자석 희토류(0.5년→1.5년) 등

\* (조달청) '23년 500억 → '24년 700억 : 요소(15일→60일), 니켈(62일→70일) 등

- 새만금(산업부), 군산(조달청) 등 신규 비축기지 구축 본격 추진

\* (산업부) '24~26년 2,417억, '24년 187억('23.12월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  
(조달청) '23~25년 251억, '24년 86억

#### ② 해외자원개발 세액공제 도입(투자·출자의 3% 법인세 공제) 및 특별융자 지원비율 확대('24.1, 사업비의 30→50%)

#### ③ 핵심광물 자원순환을 위한 「사용후 배터리 표준화 전략」 수립('23.12)

\* 사용후 배터리 운송, 이력 관리, 안전성·성능평가, 소재 회수 및 재활용, 폐기 등 가치사슬 전(全)단계의 표준화 과제 이행

#### ④ 희소금속 정·제련 기술 및 대체물질 개발, 자원보유국과의 국제 협력을 지원하는 「국가희소금속센터」 개소('23.12)

#### ⑤ 핵심광물안보파트너십(MSP)내 흑연 공급망 심층회의('24.3, 외교부), 한·아프리카 통상산업협력포럼('23.12) 등 자원협력네트워크 강화 중

## 참고3

## 「8대 산업 공급망 선도 프로젝트」 이행회의 개요

### 1. 개요

- 일시/장소 : 3.25.(월) 15:30~17:00 / 웨스틴조선 오키드룸(서울 소공동)
- 참석자 : 관계부처, 업계, 유관기관 등 20여명

#### < 이행회의 참석기업 및 기관 >

구분		참석기업 및 기관
정부		• 산업부(장관 주재), 기재부, 외교부, 조달청
업계	요소	• 롯데정밀화학, 금성이엔씨
	반도체 (무수불산, 희귀가스)	• 후성, TEMC
	이차전지 (양극재, 음극재)	• 포스코퓨처엠, 고려아연, 에코프로
	자동차 (희토영구자석)	• 성림첨단산업
	마그네슘, 몰리브덴	• KRM, EML
유관기관		• 코트라, 수출입은행, 광해광업공단, 희소금속센터, KDI, 산업기술기획평가원

### 2. 세부 일정 ※ 언론공개: 모두발언까지 공개

시 간	주요 내용	비 고
15:30~15:40	■ 요소 공급망 얼라이언스 발족식	얼라이언스 참여기관
	■ 기념촬영	참석자 전원
15:40~15:45	■ 모두발언	산업부 장관
15:45~15:50	■ '8대 산업 공급망 선도 프로젝트' 추진계획 발표	산업부
15:50~15:55	■ '공급망안정기금' 운용계획(안) 발표	수출입은행
15:55~16:55	■ 애로 및 건의사항	참석자
16:55~17:00	■ 마무리 발언	산업부 장관